

금악리 알당밭은 오일한집.

이 한집은 육지서 들어온

최지국의 아들, 산신이우다.

웃당밭은 호근므로

정좌수의 뜨님애기

두신모들 축일한집이우다.

호로은 최지국의 아들이

질이바른 마세기총 들르고

사농을 갔더니

그리에 호근므로

정좌수 뜨님애기도

낭기 푸심새 호례 간.

산중에서 서로 대호여.

최지국의 아들은

소나이 소철로

정좌수 뜨님애길 붓잡으니,

정좌수 뜨님애긴

최지국 아들을 낭데레

짐패로 잽혀 묶어두고

낭기 푸심샐 호연

걸머지젠 호난,

최지국 아들이

“살려줍서, 살려줍서.” 호연,

“날그라 누님이엥 호민

살려주키여.” 호난,

“어서 누님이엥 호커매,

살려줍센.” 호난에,

이젠 클러놓아두고

집이 오랐는디.

동니에선 자꾸 정좌수신디

“사둔을 흡시댄.”

문혼을 오라가난.

뜰은 저아방신디 간.

“나 남펜넨

하늘에서 태운 사름이 시니

허급을 맙서.” 흐였는디.

흐를날은 비가 오라.

대오방 수천리 흐더니,

최지국의 아들이

질이바른 마세기총 들르고

집안으로 들어오니,

뜰은 아방신디

“저것이 내 남펜네 될

사름이우다.” 흐난.

글지후젠

가저부체 무언 살아.

본향으로 들어사니,

어명국은 축일한집

검은오름 듅신모들로 좌정하고.

아방국은 알당밭 오일한집으로

좌정흐난.

그 속이에 난 일곱 오누이가

매딱 가지갈란.

큰아들은 종구실 고와니에 가고,

가즈부천 동명 진근동네

볼래남동산 일뢰중주고,

셋아들은 하원당 축일한집이고

가저부천 상계왓 술일한집이고,

말줏아들은 남문밧당

세다대기 삼천백매또 거느리고
가저부천 남문밧당 윤
으드레중즘이고.

다시,

큰뜰애긴 조숯물 삼대바지
수신용궁또 축일한집이고.
셋뜰애긴 당므로 중허리
일뢰중즈고.

말줏뜰애긴 느지리 캔틈
삼천백매또 거느리고
축일한집이고.
족은뜰은 객거리 마봉오지
축일한집으로 가지갈라 가
좌정호연
주손들을 그늘롭네다.

제일 축일

<한림읍 명월리 남무64세 문재옹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567-568.